



부산 다대국교의 '열린 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맛벌이 자녀들 학교서 돌본다

부산 사하구 다대국교 '열린교실' 화제

수업후 노래·윷동동 즐거운 시간 마련

학교수업이 끝난 뒤 마땅히 오갈 데 없는 영세민 맛벌이 부부와 결손가정의 자녀들을 부모들의 귀가시간 때까지 보살펴주는 학교가 있다.

수업이 끝난 뒤 동네 오락실을 기웃거리던 어린이들도 이제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학교생활이 즐겁기만 하다. 전국 처음으로 '열린 교실'을 운영하는 화제의 학교는 부산 사하구 다대국교(교장 남윤우). 지난 3월25일부터 오전 수업이 끝나면 교실이 비게 되는 1학년 교실 2개를 이용해 맛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에게 매일 학교가 끝난 뒤인 오후 2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멍들었던 동심을 환히 밝혀주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 열린 교실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은 모두 4~6학년 어린이 30여명이다.

이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인근 신평·장림공단이나 행상 등으로 맛벌이생활을 하고 있거나, 결손 가정이어서 수업을 끝내고 일찍 집에 돌아가도 하는 일 없이 빈 집을 지키거나 동네 만화방·오락

실 주위를 배회하는 일이 고작이었다.

지난해초부터 이런 어린이들을 한 곳에 모아 부모 대신 돌봐줄 방안이 없을까 골몰해 오던 이 학교 교사들은 지난해 9월 윤옥자(53·여) 교감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런 소망을 이루게 됐다. 윤 교감의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올 학기부터 신입생 수가 적어져 빈 공간으로 남는 1학년 교실을 적극 활용하자는 교사들의 의견이 맞물리면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 준비를 거치고 3월 한달 동안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 고학년의 맛벌이부부 자녀들을 중심으로 같은 달 25일 첫 수업을 시작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첫 시간은 학생들이 오는 대로 책상에 앉아 각자 숙제를 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밖으로만 뿔뿔한 아이들은 당연히 일반재학생보다 기초수학능력이 떨어지게 마련이어서 숙제 마무리에 큰 애를 먹고 있는 터라 이 시간 안에 모르는 것을 '일류 가정교사'인 선생님이

게 마음껏 물어볼 수 있다.

둘째시간은 요일별로 특화된 심성개발과목이 준비돼 있다. 월요일은 만들기과와 민속놀이교육, 화요일은 창작동요와 음악이 결합된 윷동시간, 수요일은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험 등 갖가지 체육과목, 목요일에는 윤 교감이 직접 나서는 동화구연이 있다. 금요일에는 이런 기초소양교육 외에 부산청소년상담실(원장 조광제) 상담원 2명이 나와 지금까지 '따돌이 문화'에 익숙해 온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심성개발교육을 실시해 '한울타리 동류의식'을 심어 주고 있다.

열린 교실의 전담교사직을 자원한 최영권(40)·박치은(33·여) 두 교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나 친구들에게 상대적으로 주눅이 들어있던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친구들을 신뢰하고 어리광까지 부릴 정도로 몰라보게 달라졌다"며 "다른 모든 학교에서도 이런 열린 교실이 정착돼 '따버린 동심'을 열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최익림 기자